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전혜경*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그리고 성인애착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매개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회피가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와 정적으로 갈등적 독립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갈등적 독립의 경우에는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에 있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 및 상담 개입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우울,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

* 명지대학교 객원조교수, lsch4219@naver.com

I. 서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을 실시 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울이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치가 12.9%라고 한다(강슬아, 2015). 이는 대학생이 속해 있는 청년층(19-29세) 8명 중 1명이 우울 경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치이다(박경, 2004). 우울 증상이 타 연령층에 비해 특히 20대 젊은 대학생들에게 높게 보고되는 것은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주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성과 흥미에 대한 탐색, 선·후배관계 이상의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정혜진, 2014).

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향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울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송영희, 이윤주, 2010), 내부초점 반응양식(박혜원, 오경자, 2009), 반추방식(신재훈, 2013), 성격특성이나 귀인양식(김현정, 손정락, 2006), 대처방식(이은희, 2004) 등 주로 개인 내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우울의 기제에 있어서 개인 내적 특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학생들의 발달단계 상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김육, 2012; 신재훈, 2013)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들은 대학생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야기되는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변인들도 개인 내적인 범위에서 좀 더 확장하여 개인 내·외적 인 요인들로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연구과정에서 다른 변인들과 관련된 심리적 작용을 살펴보고, 직·간접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한(신희수, 안명희, 2013; 안명희, 2014; 조은주, 이은희, 2013)인지나 정서요인에 대한 탐색이 주를 이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우울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Blatt & Shahar, 2004; 마은애, 손은정, 2014) 대학생의 우울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개인성격특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소재, 심리적 부적절감을 매개로 한 우울 연구에서 간접경로만 유의미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지나 정서요인에 영향을 받아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지나 정서요인을 거쳐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의 기분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억박지르며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공격적 행동이라고 할 때 어머니의 정서조율 능력이 저하되어 우울이 가중될수록 갈등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진다(안명희, 20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받는 자녀는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를 형성하여 타인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소외되어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하고 자녀의 행동에 죄책감을 유발하며 애정을 철회하는 등 어머니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조종하는 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정희원, 2015).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자녀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개인 내·외적 요인 중 대학생 우울과 관련하여 탐색해볼 것은 우선 부모-자녀관계이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김미영, 2002).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더 잘 반응하며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Paulson & Sputa, 1996). 이런 자녀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를 긴밀하게 여겨 자립하지 못하고 정서·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우울은 가족의 심리적역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Bowlby, 196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하게 관여하지만 애정표현은 적고,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에는 수용적이지 않다(안명희, 2014). 이러한 심리적 통제를 경험할수록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비난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Blatt & Shahar, 2004). 심리통제와 우울의 기존 연구는 심리적 통제에 대해 부모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많다(이은경, 박성연, 2011; 정주영, 2014; 조은주, 이은희, 2013). 그러나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안명희, 신희수, 2012; Barber, Bean & Erickson, 2002)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활용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심각하게 죄의식을 주는 등 바르지 못한 훈육태도로 부모의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 Harmon, 2002).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맘’이나 ‘알파 맘’과 같은 신조어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자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자녀의 발달단계에서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어 사회화의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을 야기 시키고 이는 다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은 대학생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부적절감을 경험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영란,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 인정욕구(need for approval)는 ‘한 인간이 영향력 있는 타인들로부터 승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구체적이고 정서적인 강화에 민감하게 적용되는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칙에 맞추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김수현, 1988). 인정욕구가 높을수록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맞추가려는 태도와 함께 사회적 단서에 더욱 예민하고 의존적이며 상황의 요구에 따르려 한다(김민정, 이동귀, 2008; 박주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노출되면 자녀는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다(김영란, 2014).

2. 인정욕구와 성인애착

인정욕구(need for approval)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김지윤, 이동귀, 2013). 인정욕구가 높은 경우 타인에게 버려지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영역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확인 받고자 할 때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김지윤, 이동귀, 2013; Whittal & Dobson, 1991). 인정욕구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과 긍정적 반응의 여부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 형성과 심리적 부적응(김민정, 이동귀, 2008)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인애착이란 한 개인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유지하려는 안정적인 경향성이다(Bowlby, 1980). 안정적인 경향성은 내적작동 모델에 의해 작동되며, 내적작동모델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내적작동모델은 역동적으로 조직화 된 후에도 재 조직화될 수 있으며 개인의 애착패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하다(장휘숙, 1997). 이러한 성인애착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성인이 타인과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인애착대상과의 친밀함을 통해 불안이나 우울한 마음을 다스린다(송기선, 2015).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 성인애착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타인들과의 애착관계에서 성인애착불안을 형성하면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인애착회피를 형성하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며, 대인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이나 의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을 억압하고 고립하는 전략을 사용한다(Fuendeling, 1998; 이혜진, 2013). 이는 타인에게 자기개방을 하지 않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만든다. 성인애착불안이나 회피를 형성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면적인 부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Cassidy & Berlin, 1994).

성인애착이 인정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또래인정욕구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연구(김민신, 2007)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인애착불안과 인정욕구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배예슬, 2014). 또한 불안정 애착과 관련된 요인 중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상을 지닌 몰두형과 승인욕구는 상호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다(김광은, 2004). 성인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애착불안을 형성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과도하게 민감하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과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예슬,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환경 내의 타인들의 지지라 할 수 있는 인정욕구가 성인애착과 우울이라는 개인 내·외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갈등적 독립과 성인애착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때이다. 이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심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Josselson, 1988).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할 주요 발달과제이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리와 자아기능을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다(Havighurst, 1972).

Hoffman(1984)은 심리적 독립을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그리고 갈등적 독립의 다차원적 구인으로 보고 심리적 독립척도(PSI)를 개발하였다(신 미, 2006).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과제, 즉 어머니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보는 이차적 개별화가 청소년기에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것이다(Mahler, Pine & Bergman, 1975). 또한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심리적 독립(Blos, 1979)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조영주, 최해림, 2001). 심리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부모에 대한 원망, 분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되는 갈등적 독립만이 개인적 적응과 정적

관련이 있고(Hoffman, 1984) 부모와의 갈등이 되는 감정으로 인해 불신, 부적절감,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의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한다(신 미,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우울과 갈등적 독립의 정서적인 관계와 더불어 정서적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인애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동기 애착에서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인기에 애착은 대상과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진다(Fisher & Crandell, 2001). 대학생시기에는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Schwartz & Buboltz, 2004). 심리적 독립을 분리-개별화로 볼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Rice, FirzGerald, Whaley와 Gibbs(1995)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분리-개별상황과는 역상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yan과 Lynch(1989)도 정서적 자율성은 불안정성과 정적 상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Frank, Pirsch와 Wright(1990)도 부모와의 관계성이 낮아야만 분리와 독립성이 높다고 한다. 윤승경(1989)은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독립성은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분리-개별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윤정은, 2005). 갈등적 독립과 성인애착 형성에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생들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성이 성인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신 미, 2006), 성인애착 불안과 애착회피는 개인의 정서조절에 관여한다. 어머니와의 독립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좋다고 한다. 애착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표현을 하지만, 애착회피를 가진 사람들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불안이나 우울을 억압하고 고립하는 전략을 사용한다(이혜진, 2013).

성인초기의 대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추구로 인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감소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은 지속된다고 느낀다. 청소년들이 중요한 타인들에게 갖는 성인애착관계를 안전과 지지를 제공하는 유대관계로 보기보다

는 자신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여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한다(신미, 2006). 대학생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친밀함 간의 조율을 이루고 갈등적 독립과 성인애착형성이라는 두 가지 갈등적 요소에서 균형감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Schwartz & Buboltz,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갈등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관여하고, 성인애착의 질에 따라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대학생 자녀에게 관심과 간섭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런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들은 높아지게 되고, 자기를 세워나가야 되는 시기에 독립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인격과 자율성을 훼손하여 인정욕구나 갈등적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아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인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 관계의 욕구가 잘못형성 됨으로 인해 관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요소와 개인 외적인 요소로 어머니와의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 변인으로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을 인과적 구조모형에서 세 변인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우울관련 예측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상호 연관성과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매개(부분매개, 완전매개)하는가?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인 통제는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훼손하여 통제한다는 느낌으로 인해 청소년 우울의 위험요인이 된다(Barber et al., 2002).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인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대학생의 우울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인정욕구는 응답변인으로 심리적인 통제로 인해 부모의 간섭이 높아지고 이는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게 되어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인정

과 수용을 구하는(신희수, 안명희, 2013) 과정을 통하여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할 것이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무겁게 느껴지면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고나 의견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 우울에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셋째, 불안정 애착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게 되며(Cassidy, 1994)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Bowlby, 1980).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가까운 영향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1)과 비교모형(완전매개모형, 그림2)에 제시된 것 중 어느 것이 더 실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교모형은 연구모형에서 불안정 애착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에서 우울로 이행되는 직접효과를 배제한 것으로 이 두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이 변인들이 우울에 이행되는 과정 혹은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교모형(완전매개모형)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보다 실제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대학생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반드시 불안정 애착을 거쳐서 우울로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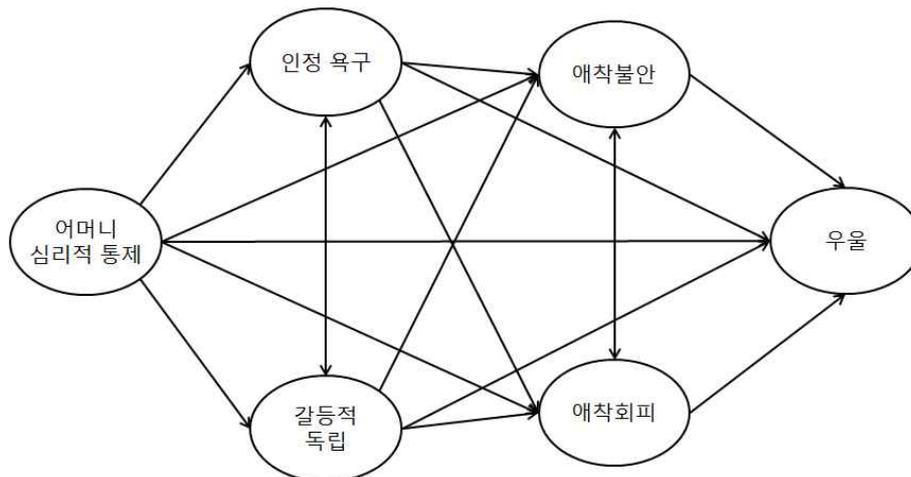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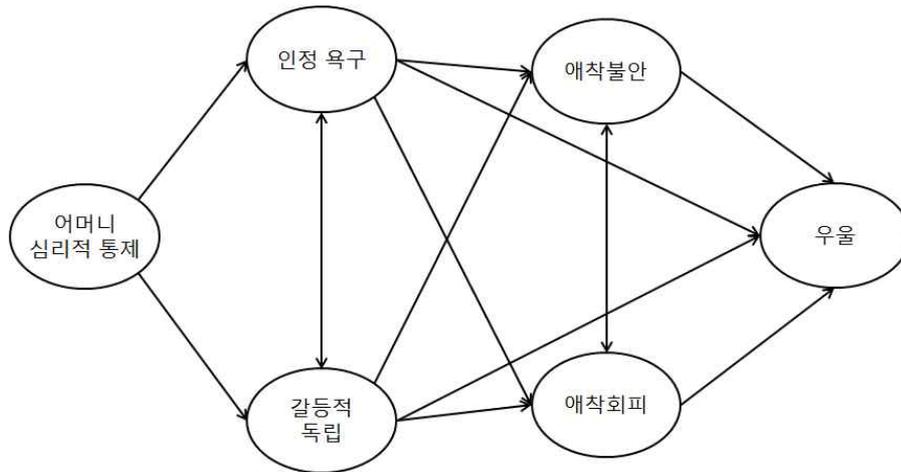


그림 2. 비교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9명(남학생 153명(41.5%), 여학생 216명(58.5%))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216명(58.5%), 2학년 102명(27.6%), 3학년 41명(11.1%), 4학년 10명(2.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의 청소년용 부모 심리통제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Y-YSR) 16문항에 Olsen 등(2002)

의 2문항을 추가하여 안명희(2010)가 번안하고 완성한 척도를 신희수(2012)가 대학생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측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며 각 하위변수의 문항 점수를 합한 값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안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2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79,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85,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74로 나타났다.

2) 인정욕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정욕구는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MLAM)을 Martin이 1984년에 개정하고 이를 이정숙(2010)이 번안하고 신희수(2012)가 사용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참자아의 모습이 어떻든 상대방에게 수용받기 위해서라면 실제 모습을 숨기고서라도 상대방에 맞추는 경향을 평가한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맞추려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 수용 받고 싶어 하고, 거부나 비판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Likert식의 5점 척도이며 총 20개의 문항 중 역채점 문항은 2, 12, 13, 16, 19번이다. Wu와 Wei(2008)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2였으며, 신희수(2012)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7로 나타났다.

3) 갈등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하고 김은희(1992)가 번역한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중 갈등적 독립 20문항만 사용하였다(나선영, 안명희, 2011). 갈등적 독립은 “부모에 대한 분노, 죄책감,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정의되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반영하는 조작적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갈등적 독립은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부

담감, 적의,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Hoffman, 1984). 갈등적 독립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선영과 안명희(2011)의 연구에서 갈등적_독립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왔다.

4) 성인애착

본 연구의 성인애착 척도는 개정판 친밀관계경험검사(ECR-Revised: ECR-R)척도로 김성현(2004)이 번안하였으며,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개정한 것이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외적 2개의 독립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하위 차원으로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 차원은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애착회피차원은 친밀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불편한 정도를 나타낸다. 두 차원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은 대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번역과정을 거쳐 동등성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타당화를 이루었다. 그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애착불안차원은 .89, 애착회피가 .85로 보고되었고, 안하얀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성인애착의 내적 일치도는 .92였으며, 애착불안차원과 애착회피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2, .90으로 나타났다.

5)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척도는 Derogati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 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김광일, 원호택과 이정호(1978)가 간이정신 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로 명명 한 것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9개의 증상차원으로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차원 13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오늘을 포함한 7일간의 경험한 증상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웬만큼 있다"(3점), "꽤 심하다"(4점),

“아주 심하다”(5점). 5단계로 평정을 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및 AMOS 21.0, Mplus 7.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우울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을 활용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단일요인 척도이기 때문에 문항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한 이후 모두 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연구자가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모수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고,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한 이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시, 자료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우울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심리적 통제,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Mplus 7.0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 간 관련성과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침도, 그리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¹⁾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369)

변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인정욕구	.35***	1				
갈등적 독립	-.80***	-.42***	1			
애착불안	.41***	.59***	-.49***	1		
애착회피	.16**	.17**	-.19***	.28***	1	
우울	.31***	.37***	-.39***	.54***	.28***	1
평균	2.27	3.08	3.77	2.61	2.70	2.70
표준편차	.75	.42	.72	.66	.60	.74
왜도	.64	.29	-.33	.05	.29	.80
침도	.01	.68	-.49	-.66	.25	.04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연구에 이용된 모든 변인들의 전체 점수 및 측정변인들은 왜도가 ± 2 , 침도가 ± 7 을 넘지 않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의 전체 점수들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변인들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갈등적 독립의 경우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 나머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 간 상관은 서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측정모형 검

1) 지면 관계상 측정변인들 간 전체 상관분석 결과는 여기에서 생략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증을 통해 확인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로 TLI, CFI, SRMR, RMSEA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95 이상, SRMR 값은 .08, RMSEA 값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Hu & Bentler, 1999).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 모두 .95 이상, RMSEA는 .06 이하로 좋은 모형의 기준을 만족시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0, N = 369) = 200.115, p < .001$; TLI = .980; CFI = .985; SRMR = .031; RMSEA = .043(90% 신뢰구간 = .032-.053). 또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641 ~ .9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β
어머니 심리적 통제	언어표현재제-감정무시	1.000		.849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1.205***	.055	.897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902***	.046	.837
인정욕구	인정욕구1	1.000		.731
	인정욕구2	.905***	.084	.641
	인정욕구3	1.085***	.086	.800
갈등적 독립	갈등독립1	1.000		.923
	갈등독립2	.962***	.035	.895
	갈등독립3	.914***	.033	.893
애착불안	애착불안1	1.000		.906
	애착불안2	1.044***	.042	.880
	애착불안3	1.113***	.041	.916
애착회피	애착회피1	1.000		.875
	애착회피2	1.145***	.048	.909
	애착회피3	1.111***	.047	.894
우울	우울1	1.000		.863
	우울2	1.230***	.058	.859
	우울3	1.113***	.047	.925

*** $p < .001$.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을 거치고, 이후 다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통해 우울로 가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포함된 연구모형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제거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가정하지 않은 비교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비교모형이 연구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어떤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인지를 확인하였고, 두 모형의 적합도와 χ^2 차이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즉, 동일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타당한 모형이 있고, 두 모형의 χ^2 값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더 단순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만일 두 모형의 χ^2 값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면 더 설명을 많이 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Kline, 2015).

분석 결과, 우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TLI와 CFI는 .95 이상, SRMR이 .08 이하, RMSEA는 .06 이하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해볼 때 비교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_{\text{비교모형-연구모형}}(3) = .282, p > .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교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χ^2 차이검증 결과

	χ^2	df	TLI	CFI	SRMR	RMSEA(CI*)
연구모형	200.115	120	.980	.985	.031	.043(.032-.053)
비교모형	200.397	123	.981	.985	.031	.041(.031-.052)
χ^2 차이검증	$\Delta\chi^2(3) = .282, p > .05$					

* CI =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와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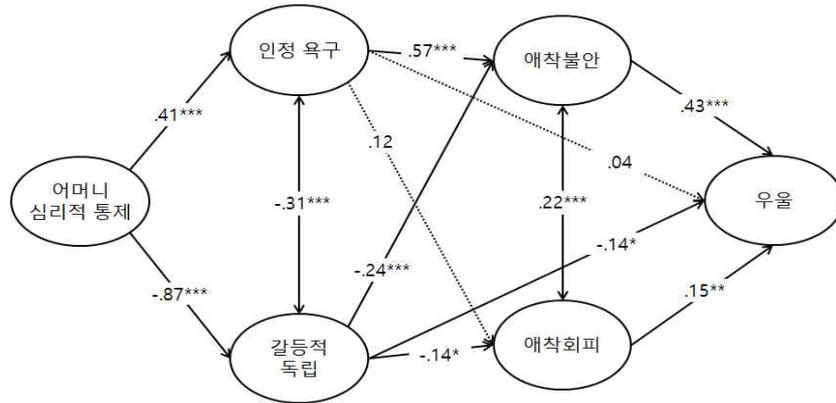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비교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그림상으로는 내생변인인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간 공분산을 직접 연결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재변인의 오차항들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B	S.E.	β	t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224	.034	.413	6.58***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922	.049	-.869	-18.74***
인정욕구 → 애착불안	.936	.108	.574	8.69***
인정욕구 → 애착회피	.164	.103	.115	1.60
인정욕구 → 우울	.070	.139	.041	.50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200	.044	-.240	-4.50***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105	.048	-.144	-2.17*
갈등적 독립 → 우울	-.124	.051	-.141	-2.46*
애착불안 → 우울	.456	.084	.431	5.45***
애착회피 → 우울	.179	.060	.148	2.99**
인정욕구 ↔ 갈등적 독립	-.037	.010	-.305	-3.77***
애착불안 ↔ 애착회피	-.305	.014	.219	3.36***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beta = .413, t = 6.58, p < .001$)와 갈등적 독립($\beta = -.869, t = -18.7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은 높고, 갈등적 독립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574, t = 8.69, p < .001$). 반면, 인정욕구에서 애착회피 및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았지만, 성인애착회피나 우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의 경우 애착불안($\beta = -.240, t = -.450, p < .001$), 애착회피($\beta = -.144, t = -2.17, p < .05$), 우울($\beta = -.141, t = -2.46, p < .05$)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 및 성인애착회피, 우울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있어서 애착불안($\beta = .431, t = 5.45, p < .001$)과 애착회피($\beta = .148, t = 2.99, p < .01$)가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beta = -.305, t = -3.77, p < .001$), 애착불안과 애착회피($\beta = .219, t = 3.36, p < .001$)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우울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AMOS는 매개변인과 준거변인이 한 개 이상인 모형을 검증하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간결한 방법으로 Mplus 7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경로 자체를 가상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Rindskopf, 1984). 이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해서,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sobel 검증의 한계인 정상분포의 제한을 받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hrout & Bolger, 2002). 이때 그림 3에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5

매개(간접)효과들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부트스트랩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 애착불안 → 우울	.096	.028	.049	.160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 애착불안	.210	.039	.135	.289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 우울	.084	.029	.038	.151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184	.047	.095	.275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 우울	.017	.011	.003	.049
어머니 심리적 통제 →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097	.046	.004	.186
인정욕구 → 애착불안 → 우울	.426	.102	.249	.656
갈등적 독립 → 애착불안 → 우울	-.100	.033	-.180	-.048
갈등적 독립 → 애착회피 → 우울	-.021	.013	-.057	-.003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1,000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자료임.

우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96$, 95% Bias-corrected CI = $.049 \sim .160$).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통해 애착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210$, 95% Bias-corrected CI = $.135 \sim .289$).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져서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84$, 95% Bias-corrected CI = $.038 \sim .151$).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을 통해 애착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184$, 95% Bias-corrected CI = $.095 \sim .275$).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가 갈등적 독립을 못하게 되어 성인애착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 애착회피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7$, 95% Bias-corrected CI = $.003 \sim .049$).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회피가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을 통해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97$, 95% Bias-corrected CI = $.004 \sim .186$).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가 갈등적 독립을 못하게 되어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426$, 95% Bias-corrected CI = $.249 \sim .656$). 즉, 대학생들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아져서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적 독립의 경우,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 = -.100$, 95% Bias-corrected CI = $-.180 \sim -.048$)와 애착회피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 = -.021$, 95% Bias-corrected CI = $-.057 \sim -.00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아져서 우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그리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대학생 369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로 제시하였던 대학생의 우울관련 예측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상호 관련성과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와 정적으로 갈등적 독립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은 높고 갈등적 독립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간섭과 통제는 사랑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자녀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어 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긍정적 수용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영란,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 대학생들은 자신의 심리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의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는 중학생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준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최수경, 1997). 어머니의 심리적 간섭은 대학생의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거나 과보호적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하여 독립심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지인, 2008).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서도 의존하게 되어 대인관계의 폭도 넓혀나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의 해소 방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두려움을 살펴보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이나 확인을 받고자 요구하는 신념을 수정해 나가야하며(Blankstein & Dunkley, 2002), 인정욕구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불안정애착요인 중 자신에게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는 성인의 몰두형과 승인욕구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광은, 2004)와 같은 의미이다. 즉,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몰두형은 타인의 긍정적인 표상으로 비교적 쉽게 관계를 형성하

고 친밀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잘 들어 내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율성이나 분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Ringer & Crittenden, 2007),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특히 관계에 위협이 되는 단서에 과도하게 민감하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예슬, 2014).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경험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과의 관계에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Bowlby, 1973). 대학생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다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패턴을 파악하게 한다.

셋째, 갈등적 독립의 경우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불안 수준 및 성인애착회피, 우울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여대생의 성인애착의 하위 요인에 영향력을 보였다는 신 미(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여대생은 친구나 이성에게 신뢰하며 기댈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며 그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Hoffman, 1984; 신 미, 2006). 대학생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죄의식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으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지지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개별화 과정이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독립성을 주장하며 자신과 세계를 탐색하여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우울에 있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애착일수록 우울이 낮다는 결과나 불안정애착이 더 심한 우울을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Brumariu & Kerns, 2010; Cassidy & Berlin, 1994). Bowlby의 애착이론은 심리내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등 연구에서 성인애착불안의 특성은

애착대상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그 대상에게 안정을 느끼고 타인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성인애착회피의 특성은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화 한다는 것이다. 성인 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김병직과 오경자(2009)의 연구결과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표현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 둘 다 우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2로 제시되었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매개(부분매개, 완전매개)를 분석한 결과 비교모형이었던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를 매개로 했을 때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 애착불안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정욕구와 애착불안 모두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개변인을 통한 중재 방법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희수 외(201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스스로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Barber & Harmon, 2002) 이로 인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된다(신희수, 안명희, 2013). 이때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오지 않으면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과도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애착불안이 형성되어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이주영, 2012).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이후에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 사회적 관계형성이 많아지는 대학생들의 관계형성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욕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정욕구의 충족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아져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갈등적 독립, 애착불안, 애착회피 모두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행동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갈등적 독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인(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갈등적 독립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성이 낮아야만 분리와 독립성이 높다고 보고한 Frank 등(199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갈등적 독립을 통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며(신 미, 2006), 어머니와의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주어 갈등적 관계로 경험되고 자기의 가치감에 영향을 끼쳐(최명진, 2010), 대학생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1-2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학생으로서 충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와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불안정성인애착이 형성되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현재 생활에 기반하는 횡단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횡단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관계 확장의 시기별 차이를 나누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성인애착, 갈등적 독립 등 우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종단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변인에 대한 연구 대상이 주양육자인 어머니로 한정하였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통제 행위에 대한 효과검증을 제한한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외의 아버지 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형제간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통제 행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들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대학생이 우울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인정욕구나 갈등적 독립을 통해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형성되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우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지 그 심리적 기제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개인이나 집단상담 장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불안정 애착으로 이해되는 관계의 고리를 먼저 끊어주어 우울로 이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우울한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경험이나 지각된 관계경험 등을 파악하여 현재 관계경험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개념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관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기수용을 통하여 우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경험에서 인정욕구나 갈등적 독립을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결과로 밝혀진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을 통해서 대학생자녀의 우울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

록 자녀의 인정욕구는 높아지고 자율성 욕구가 좌절되어 갈등적 독립 수준은 낮아져 우울이 유발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존욕구와 좌절된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기의 부정적인 부분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주요 발달과업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미래의 성인애착을 예언하고 그들 관계의 효과적인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어머니 스스로가 자녀와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양육태도를 다르게 하는지 살펴보며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슬아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한국판 표준화 연구 I. **신경정신의학**, 17(4), 449-458.
- 김미영 (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학업성취의 관계: 어머니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선 (2007). **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수준과 성정체성 및 또래인정욕구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이동귀 (2008).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승인욕구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89-304.
- 김병직, 오경자 (2009).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추와 정서 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57-375.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현 (1988).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의 친애욕구가 상담의 과정변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란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 옥 (2012).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을 활용한 대학생의 우울감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학회**, 20, 203-229.
- 김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이존증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

-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31-355.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 박 경 (2004).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문제해결과 완벽주의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65-283.
- 박주연 (2014). **청소년의 인정욕구 및 자기구실 만들기: 사회불안, 평가염려 및 하향 비교의 역할**.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 오경자 (2009). 대학생의 내부초점적 반응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고 통제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19-30.
- 배예슬 (2014).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섭식태도: 타인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2012).
- 송기선 (2015). **20대의 SNS 중독경향성과 불안정 성인애착, 외로움, 인정욕구의 관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희, 이윤주 (2010).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목표안정성과 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53-573.
- 신 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재훈 (2013).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수 (2012).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대학생의 내면화 증상의 관계: 완벽주의,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

-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4), 691-710.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58.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 274-283.
- 윤승경 (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정은 (2005). **청년기 애착 안정성과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52.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이정숙 (2010).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 경험의 매개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영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 변인의 매개 효과: 희망, 사회적 자기 효능감, 부정적 자동사고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인 (2008). **어머니의 애착경험,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진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통제노력의 조절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1997).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323-341.

- 정주영 (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37-263.
-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희원 (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애착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수경 (1997).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m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on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 In B. K. Barber (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85-3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 Shahar, G. (2004). Psychoanalysis: For what, with whom, and how: A comparison with psychotherap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52*, 393-447.
- Blos, P. (1979).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In P. Blos (Ed.),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 - 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umariu, L. E., & Kerns, K. A. (2010). Parent-child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review of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 177-203.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4), 971-991.
- Fisher, J., & Crandell, L. (2001). Patterns of relation couples. In C. Clulow (Ed.),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 (pp. 15-27). London: Brunner-Routledge.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19, 571-587.
- Fuendeling, J. M. (1998). Affect regulation as a stylistic process within adult attach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3), 291-322.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Kline, R. B. (2015). *P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A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J. et al.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35-2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ulson, S. E., & Sputa, C. L. (1996). Patterns of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nd parents. *Adolescence*, 31, 369-381.
- Rice, K. G., FitzGerald, D. P., Gibbs, C. L., & Whaley, T. J. (1995). Cross-sectional and lo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463-474.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1), 37-47.
- Ringer, F., & Crittenden, P. M. (2007). Eating disorder and attachment: The effects of hidden processes on sating disord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5*, 199-130.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chwartz, J. P., & Buboltz, Jr. W. C.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5), 566-57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CA: Sage.
- Whittal, M., & Dobson, K. S.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s a consequence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interpersonal evalu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391-398.
- Wu, T., & Wei, M. (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edi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276-288.

ABSTRACT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Jeon, Hyekyung*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hich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and the impact it has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also aimed to more clearly differentiate the relevancy among the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in the context of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confirm this, a survey targeting 369 university students (male and female) was conducted, and the mediation effect was identified by establishing a mode which could explain the relevancy betwee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hrough the research model and comparative model. The results indicated a perfect mediation model, in whic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did not affec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or depression amongst university students, and this was therefore adopted as the final model. In terms of specifics, it firstly showed that when mothers exerted strong psychological control over university students, the higher the need for approval of university students rose, and this mean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becam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of adult

* Myongji University

attachment anxiety.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strongly mothers controlled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ly, the lower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became; this resulted in the level of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becoming heightened as the attachment anxiety got deeper. Lastly, it showed that the more strongly mothers controlled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ly, the low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separation became; and this resulted in the level of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rising as the result of adult attachment avoidance increasing.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eed for approval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separation. The need for approval is related to adult attachment positivel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s related to adul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depression negatively. Depression is correlated to adult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made a number of suggestions regarding a follow-up study.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on,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dult attachment

투고일: 2016. 6. 12, 심사일: 2016. 8. 1, 심사완료일: 2016. 8. 12